음치, 경제치, 복지치

(민27:12~23)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13.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14.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 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이니라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음치, 경제치, 복지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음치, 경제치, 복지치'
음치는 다 아시지요. '음치'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어서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을 '경제치'라고 해봅니다. 음치가 음정과 박자를 못 맞추고 음악에 대해서 시쳇말로 젬병인 것처럼, 경제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경제치이고, 또 말을 만들어 보자면 '복지치'라는 말입니다. 선민이라는 사람이 노래도 잘 부르고, 돈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잘 아는데 복지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이 이야기를 함께 해봅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인간관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서 유일하게 1993~2005년의 무려 12년 간 일본의 사업소득 전국고액납세자 총합 순위의 10위 안에 드는 거부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데 '좋은 사람인데 도대체 왜 돈 때문에 힘든 걸까요?'라는 질문에 '바로 거기에 신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뭔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신이 매우 친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유 없이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나를 볼 때에도 특별히 모나거나 악하지 않은데 돈 때문에 힘이 든다면, 오류를 깨우쳐주시기 위한 신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돈이 순조롭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오류가 있기 때문인데 바로 잘못된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부자의 인간관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열심히 살았지만 돈으로 인한 고민이 끊이지 않는다면, 돈의 흐름을 순조롭게 만드는 인간관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핵심주제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좋은 사람일수록 반드시 돈과 사람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 하는 말이 '20세기가 전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

는 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돈 문제에 대해서 마음과 주의를 기울여서 일부러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연구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절대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노래를 못하는 음치는 용서 받아도, 경제를 모르는 경제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치에서 벗어나려면 돈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50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매일 실천하면 어느새 나와 주파수가 맞지 않는 사람과는 결별하게 되고, 나에게 돈과 운과 재수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인간관계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 한 번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한 번 읽어 보시지 않으실래요?

이 저자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해보자면 선민에게 음치도 용서될 수 있습니다. 더해서 경제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경제와 돈에 대해서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뿐더러 영적으로만 바라볼 때에 세상에 대한 백치미가 선민에게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10:16절의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불신자의 자식들이 더 지혜롭다는 것인데 영적 이해타산을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짜 잃는 것이 무엇이고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영적 가치에 대해서 지혜로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선민에게 있어서 치명적이고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지치입니다.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마음이 방방 뜨듯이 가벼운 삶이 유지되질 않습니다. 우러나는 기쁨도 없고 우러나는 감사도 없는 것은 복지를 잃었기 때문인데 노골적으로 복지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처럼 참혹한 형벌이 없습니다마는, 그 형벌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핵심적 주제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타락이 에덴(기쁨)의 상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상실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에덴의 의미와 복지의 의미가 함축 된 복음의 삶을 허락하시려고 하십니다. 기쁨과 감사는 참 신앙의 지수입니다. 참 기쁨이 있느냐는 것으로 참 신앙이 있느냐를 측정해 낼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참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기쁨'은 선민의 존재 이유이고 자존심이고 정체성의 신분증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과는 다른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고 정체성을 표현하는 신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꾸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을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참 기쁨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어 화장터에서 몸이 불탄다고 가정해 봅니다. 내 육체의 몸

이 불 탈 때에 함께 타버리는 관계가 있고, 타지 않고 남아있는 관계가 있게 됩니다. 이때에 타지 않는 관계에서 생긴 기쁨이 참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돈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학벌이 좋아서, 승진해서, 미모가 출중해서, 사업 때문에, 애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기쁘다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죽어서 화장터에 들어가서 내 몸이 불살라지면 그 관계가 다 타서 없어집니다. 내가 화장터에서 몸이 불살라지는데도 관계가 남아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와의 관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이고 성령님에 대한 관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화장터에서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관계를 살아있는 동안에 맺어가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 참 기쁨이고 참 복지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죽었을 때에 화장터에서 불타면 없어질 관계 때문인데 그것으로 기뻐합니까?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삼일 못가고, 석 달을 못가고, 삼년을 가면 그저 최고로 간 겁니다. 그래서 선민들은 인생에서 대단한 것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복지를 지키면 됩니다. 내년에는 연봉이 일억 되는 월급쟁이가 되고, 내년에는 아파트를 몇 평짜리를 사고, 자동차를 사고, 뭘 해야겠다는 이러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은 다 목표를 세우라고 난리지만 우리는 새로운 무엇을 소원하면서 이루고 쟁취할 필요가 없고, 주어지는 복지나 잘 지키면 됩니다. 복지, 약속의 땅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내가 준다, 내가 주려고 한다, 내가 주고 싶다'라고 안달하시므로 그 복지를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대로 모세가 이 복지를 상실합니다. 참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민수기의 맥락에서 복지를 상실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 경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지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지 상실은 정탐사건으로 이들의 문제는 눈으로 보는 가나안 족속들의 앞선 문명을 대할 때에 현실과 얽혀있는 세상적 통념을 넘어서질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강하고 우리는 오합지졸입니다. 강한 자와 오합지졸이 전쟁을 했을 때에 그 결과는 오합지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이 통념을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가나안 족속에게 가서 접촉하고 반응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에 접촉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니 이제 40년이 지났으니 47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500년 동안 쥐고 계시고, 포기하거나 망각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점에 마음이 닿아서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밥이라는 말을 하게 되고 통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복지를 잃은 것은 정탐꾼이나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모세는 사람들 때문에

복지를 상실하는데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인간관계'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모세가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복지를 상실합니다. 정탐꾼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복지를 상실했는데, 모세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복지를 상실합니다. '부자의 인간관계'라는 책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가 좋으면 돈이 원활하게 들어와서 순조로운 흐름을 탈 수 있다고 하는데, 인간관계에서 복지가 상실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기에 가나안 땅을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모세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므리바 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라고 하시는데 생각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롬3:10절의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하시는 말씀에서처럼 우리보다 훌륭한 모세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생각할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느하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알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끌고 막사로 들어가서 관계를 맺자 비느하스가 둘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고 하시며 진노를 멈추십니다.
므리바 물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도 백성에게 진노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비느하스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진노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진노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세에게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바알과 이스라엘백성들의 삼각구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질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좋아하니 하나님께서 바알을 적대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적개심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양자 관계에 모세가 가담을 합니다. 3자 관계에서 비느하스가 가담한 것처럼, 모세는 양자관계에서 가담을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진노했는데 복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한다며 운동권에 들어가 학생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최루탄에 맞서 돌을 던지며 싸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양자관계에 모세가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있든지 그 양자관계에 내가 가담할 때에 어떻게 해야 복지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양자관계에 잘못 가담함으로서 모세는 모세이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허락받지를 못합니다.
'부자의 인간관계'라는 책에서 인간관계가 돈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한 것처럼 인간관계가 복지를 결정해버립니다. 내가 복지를 상실하거나 유지하거나 지킬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 봅니다.

아빠가 어린 자식이 잘못해서 화를 내며 매를 들고 때립니다. 이때에 이 상황을 이 양자관계를 바라보던 엄마가 어린 자녀에게 같이 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런 놈은 맞아도 싸다'라고 하며 더 때리라고 부추깁니다. 이렇게 되면 아빠의 입장은 황당해집니다. 자식의 잘못을 보고 아빠가 매를 들고 때리지만, 아빠의 진노의 이면에는 내가 자식의 종아리를 치는 현실을 누군가 말려줬으면 하고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 상황을 말려달라고 하는 외침이 섞여있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엄마라는 사람이 '저놈의 자식을 아예 죽이라'고 나온다면 그 여자는 생모가 아니라 고약한 후처이거나, 옛날 같았으면 못된 첩이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못돼먹기는 불신자보다 더 하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자들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시고 무섭게 내려치시고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마음 한편에서는 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중간에서 누군가 말려줄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몇 대 맞은 아이를 엄마가 감싸주면서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라고 말해주는 엄마 같은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심판사이에서 아빠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자기도 진노합니다.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는 인간적으로 보자면 얼마든지 타당하고 합당한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까? 출애굽의 기적과 열 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이 해어지지 않고 물이 떨어지지 않고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를 먹이신 이러한 기적들을 체험한 자들이 잠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화를 낼만 하죠. 그런데 낼만한 화를 냈다가 사람관계에서 복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씀의 진의는 '나는 때리지만 너는 말렸어야지. 네가 화를 내어서 내 이면에 있는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드러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복지가 유지되느냐 상실되느냐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에 화가 나거나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고 좋아하는데 다 복지가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모세에게 복지를 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옷에 묻은 얼룩에 옥시크린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씻지 않아도 저절로 지워지듯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복지의 계획을 옥시크린으로 지워버리는 일이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모세처럼 행동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어느덧 백성에게 마음이 붙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울 때에 손을 찬물에 집어넣으면 차가움을 느끼며 반응하는 것처럼, 모세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붙어있다 보니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접촉하고 닿아있으면 옥시크린이 옷의 얼룩을 지우듯이, 하나님 마음속에 준비되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복지가 지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알려주십니다. 이제까지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엘르아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엘르아살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를 따라갑니다. 결국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도 보고 백성도 보았던 상황에서 둘을 나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은 하나님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을 같이 보다보니 자꾸 사람 쪽으로 마음이 닿게 되면서 모세가 저지른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엘르아살의 말만 듣도록 규정해 놓고 엘르아살은 하나님만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일을 전담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고 엘르아살의 말을 듣게 하셨고, 엘르아살은 하나님만을 보도록 체제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하던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다시금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가서 십자가를 보면 거기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면서 또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드러내면서 나의 복지가 지켜집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김정은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김정은에게 가서 닿으면 안 되고, 일본의

아베 수상에게 닿으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닿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닿으면 안 되고 좋아하는 애인에게 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지가 상실되는데 옥시크린이 얼룩을 지우듯이 지워집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지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접촉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선민은 음치 괜찮아요. 경제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복지치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모세가 가나안을 상실한 단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지를 지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지치의 자리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생활화하여 하나님의 마음만을 드러내며 복지까지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